

화학분야 박사 40명 해외연수!

과기부, 박사후 해외연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 최장 2년

2003년 전반기 박사 후 해외연수자로 선정된 215명이 3월1일부터 해외 선진기관에서 연수에 들어간다.

과학기술부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인 <박사 후 해외연수(Post-doc.) 사업> 2003년 전반기 지원 대상자 21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해외연수자들은 2003년 3월부터 최고 2년 동안 해외 선진연구기관에서 연수활동에 들어간다.

2003년 전반기 선정에서는 총 316명이 신청한 가운데 215명이 선정돼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초의학학 관련 분야가 46명 신청자 중 33명이 선정돼 신청 및 선정에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고, 농수산과 기계 분야도 각각 45명, 42명 신청에 26명, 28명이 뽑혔다.

화학공학 분야에는 41명이 지원해 23명이 선정됐다.

반면, 수학·물리·생물·지구과학 등 순수과학 분야에서는 각각 10-11명이 지원해 7-8명이 선정됐으며, 화학 분야에서는 이보다 다소 많은 15명의 지원자 중 12명이 선정됐다.

박사 후 해외연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2003.1H)

(단위: 명)

구 분	신청	선정	구 분	신청	선정	구 분	신청	선정
수 학	10	7	기 계	42	28	농수산	45	26
물 리	11	8	재료자원	23	15	기초의학학	46	33
화 학	15	12	전기전자	23	21	전 산	14	9
생 물	10	8	화학공학	41	23	복합학	9	4
지구과학	10	7	토목건축	17	14	합 계	316	215

1982년부터 시작된 <박사 후 해외연수 사업>은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며 소속기관이 있는 신진과학자를 대상으로 연구기반과 환경이 양호한 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왕복항공료와 최장 2년까지의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선정된 연수 후보자가 안정적으로 해외 선진 연구기관에서 연수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2년까지 확대하고, 연수 지원경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지원 대상자도 기존 200명 수준에서 4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견분야 측면에서 국가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핵심 전략분야를 우대해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강화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599억원을 지원해 총 4005명에게 해외 연수기회를 주었고 연수 대상자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 본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첨단 선진기술을 조기에 습득·활용함으로써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업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서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지적응 및 연수에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 중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후반기 <박사 후 해외연수 사업>은 4월 모집 공고, 5-6월 접수 및 평가 기간을 거쳐 7월에 최종대상자 2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 02/ 05>